

1 칼빈 : 거룩한 영웅인가 아니면 최악의 기독교인인가?¹⁾

번역 및 논찬 김중희 교수 / 백석대학교, 교회사

16세기에 쓴 종교개혁자들의 전기는 최근 내가 연구하는 프로젝트이다. 그것은 문학장르로서 16세기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경향보다 훨씬 더 보편적이다. 지금까지 그것들은 당시 선별되어 수록된 적이 거의 없었고 저서에 흔히 붙는 서문과 같이 은밀한 형식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했을 주목을 완전히 받아 본 적이 없었을 것이다. 또한 사망한 개혁자들의 친구들이나 제자들이 썼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당혹스러움을 주는 자료였다.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것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삶들에 대해 찬양일색이고 비판적인 보도는 없다. 그 전기들은 문헌을 참조하거나 철저히 검토하는 일이 거의 없이 프로테스탄트 명분에 주어진 그 주제의 개인적인 덕행과 존엄성과 수고에 집중하였다. 그것들은 몇몇 고대 전통들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 즉, 그리스-로마의

1. 본 글은 제9차 세계칼빈학회에서 발표된 논문으로 이레나 박쿠스(Irena Backus)가 쓴 "Calvin, Saint hero or the worst of all possible Christians?"을 번역 및 논찬하였다.

추도사, 정치가, 영웅, 철학자 등의 전기로서 로마제국 후기에 융성했는데, 그때는 광범위한 주제들을 공통적인 유산으로 연합시키는 것이 중요했다.

그것들은 보통 모음집으로 보급되었으며, 플루타르크(Plutarch)의 전기가 그 고전적인 예이다. 이런 장르들은 기독교인들이 채택하였는데, 추도사(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의 추도사와 같은) 낭독, 어거스틴의 포시디우스(Possidius) 전기가 적절한 경우이다. 그리고 그것들은 주교들의 전기와 드디어 순교자들과 성인들의 전기에 채택되었는데, 여기서 기적들에 대해 설명했고 전기와 성인전과 같은 모음집으로 보급되었다. 그리스-로마 모델의 전기는 르네상스 시대에 부활되었는데, '걸출한 인물들'(illustrious individuals)²⁾의 전기들을 모은 모음집이 많이 출판되었다.

16세기의 프로테스탄트 전기작가들은 이 모든 전통들을 물려받았다. 그들은 흔히 인문주의자들일 뿐 아니라 신학자들이었고, 또한 중세의 성인전에 정통했다. 그러므로 그들의 주된 방법론적 문제는 그리스-로마 제국적인 전기들이나 르네상스 모델에 너무 가까운 기술을 따라하는 것을 피하면서 프로테스탄트 성인전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것이었는데, 르네상스 모델을 벗어나지는 못했다. 이것은 언제나 쉽지 않았다. 개혁가들의 전기는 주로 고인들에 대한 비판들과 그들을 둘러싸고 있던 소문들을 가라앉히기 위해 쓰여졌다.

이렇게 변호하는 관점은 그 주제의 경건성에 대해 과장된 강조점을 수반하다 보니 원하는 자나 원하지 않는 자나 모두 순교와 기적만 없을 뿐 성인을 닮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동시에 종교개혁 시대에는 새로운

2. For example : Virorum qui superiori nostroque saeculo eruditione et doctrina illustres atque memorabiles fuerunt Vitae. Iam primum on hoc volumen collectae.//Terentius : inspicere tanquam in speculum vitas hominum iubeo atque ex aliis sumere exemplum sibi, Francfurt, Christian Egenolph(1536).

형식의 전기가 생겨났는데, 그것은 적대자들이 쓴 종교개혁자들의 전기 형태로, 신자들을 종교개혁으로부터 돌아서게 할 의도로 쓰여졌다. 그것들은 어조가 냉혹하고 중상적이며, 특히 악의적이었다. 볼섹(Bolsec)이 선구자였던 이러한 장르는 특히 16세기 후기와 17세기 초기에 프랑스와 스코틀랜드에서 대중적이었다.

칼빈의 전기에서 그 장르에 따르는 긴장들 중 특별히 적절한 몇몇 예를 볼 수 있다. 더 적절하게 말하면, 그것들은 칼빈의 이미지, 좀더 정확히 말하면 이미지들에 대해 설명해 주는데, 그것들은 오늘날까지 그를 따라다닌다. 그것들은 또한 전기에 대한 제네바적 접근과 같은 것이 존재했다는 것과 이러한 접근은 완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오늘날 칼빈의 전기에 대한 주제를 철저히 규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베자(Beza)와 콜라동(Colladon)이 쓴(1564, 1565, 1575년) 친-칼빈 전기와 새로운 유행을 정착시킨 것으로써 볼섹이 쓴 반-칼빈 전기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1. 1564년 베자가 본 칼빈

잘 알려진 대로 1564년과 1575년 사이에 칼빈의 전기에 대한 책이 세 권 출판되었다. 맨 나중 책은 17세기에 종종 재판되었다. 그 책들 모두 부록에 칼빈의 유언과 그의 작품 목록을 포함하고 있다. 베자는 프랑스에서 첫 번째 책을 칼빈의 여호수아 주석 서문으로 썼다. 그 주석은 칼빈이 1564년 임종 시에 출판하지 않은 채로 남긴 것이었는데, 그의 후계자가 1564년 제네바에서 페린(Perrin)에게 출판하도록 했다.³⁾ 같은 해에 베자는 *Discours de M. Théodore de Besze, contenant en bref l'histoire de la vie et mort de Maistre Jean Calvin avec le*

3. See Frédéric Gardy, Bibliographie des oeuvres de Théodore de Bèze, Geneva : Droz, xxxx, no. 173, p. 105. Hereafter cited as Gardy.

*Testament et derniere volonte dudidict Calvin, Et le catalogue des liures par luy composez*⁴⁾라는 제목으로 따로 출판했다.

가디(Gardy)는 모두 1564년이라고 적혀 각각 출판된 다음의 리플릿을 열거하는데, 그것들은 각각 오를레앙에서 엘로이 기비에르(Elloi Gibier)가, 출판사의 주소 없이 세인트-로(Saint-Lo)에서 토마스 부차드(Thomas Bouchard)가, 그리고 오를레앙(Orléans)에서 무명의 출판자가 출판했다.

63페이지의 소책자에는 아마도 엘로이 기비에르가 썼을 것으로 보이는 서문이 있는데, 그 서문은 출판을 둘러싼 근본적인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다.

그것에 따르면, 칼빈의 전기에 위협이 없다 하면서 성인전 경향으로 흐르거나 미신을 조장하고 있었다. 반대로 그는 베자의 전기를 서문으로만 너무 짧게 고찰하고, 독자는 제네바의 개혁가처럼 중요한 어떤 사람에 대한 회상을 그렇게 짧은 작품으로 망라될 수 없다고 생각할 것임에 틀림없다.⁵⁾ 하지만 이것이 그것을 무가치하게 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베자의 전기의 특이성은 무엇인가? 그 출판업자에 따르면, 그것의 목적은 무엇보다도 독자를 교화하는 것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4. 나는 출판사의 주소가 없는 이 판(또한 1564년에 출판되었다.)의 출판사향을 언급할 것이다. See Gardy, no. 175, p. 105.

5. *Discours*, p. 2 : Imprimeur au lecteur : "Cependant ne trouue estrange si ce discours ne commence par la forme accoustumee aux Hystoriographes, car l'intention de l'authheur qui est M. Theodore de Besze, semblablement bon seruiteur de Dieu, et compaignon de M. Iean Caluin en l'oeuvre du Seigneur, n'a esté de le publier comme une histoire, ains seulement pour vne preface aux commentaires dudidict Caluin sur le liure de Josue, mis en lumiere depuis son trespas. Je t'ay bien voulu aduertir de ce, affin que tu ne pensasses que la memore d'un si grand personnage se peut contenter d'un si petit discours(combien qu'il soit diligemment et veritablement fait)....."

친애하는 독자여, 하나님의 신실한 종 존 칼빈의 삶과 죽음을 포함하고 있는 이 간단한 이야기에서, 그가 기독교론을 옹호하기 위해 공격한 놀라운 예들과 그의 명예와 영광이 위태로울 때 그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당신은 보게 될 것입니다.⁶⁾

다음과 같은 말은 또한 초보 독자를 사로잡기 위한 것이었다. "그가 행한 모든 것에 대해 훌륭하고 완전한 설명을 기대해도 좋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의 진보에 매우 많은 득이 될 것입니다."⁷⁾ 베자가 쓴 칼빈의 전기는 이렇게 한 개인에 대한 보도이지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에 대한 보도가 아니다. 칼빈의 전기는 하나님의 참된 교리를 수립하기 위한 투쟁에서 수도 없는 공격을 견뎌 낸 어떤 사람에 대한 교화적 예를 제공해 준다. 인간 칼빈과 그가 견뎌야만 했던 것에 대해 아는 것은 교회를 이롭게 할 공적인 전기에 중요하다. 칼빈 자신이 자신에 대해 신중했다는 것과 그가 죽은 후에 어떤 종류의 제의적 인물이 되는 것을 혐오했다는 점, 그리고 그의 소원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두려움이 발생했던 것을 염두에 둔다면, 베자의 전기에 대한 이러한 도입은 훨씬 더 놀라운 것이다. 베자의 전기에 대한 서문의 어조는 그의 두려움이 확실했다는 것을 보여 줄 것이다.

칼빈의 전 생애를 보여 주는 서문에 표현된 소원은 그 개혁가의 전기들이 융성했던 19세기와 20세기까지 실현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

6. *Discours*, p. 2 : Imprimeur au lecteur "Amy Lecteur, ie t'offre ce present sommaire contenant la vie et mort du fidele seruiteur de Dieu M. Iean Caluin par lequel tu verras de merueilleux exemples des assaux qu'il a soustenus pour deffendre la doctrine du Fils de Dieu, et aussi quelle assistance Dieu fait aux siens quand il est question de son honneur et gloire."

7. *Discours*, p. 2 : Imprimeur au lecteur : ".....lequel te servira seulement de te donner esperance d'attendre vne belle et ample histoire de ses faits et gestes, qui profitera grandement à l'aduancement de l'Eglise de Dieu"

다. 하지만 서문 첫머리에서 자신의 설명을 숨긴 베자가 같은 해에 팜플릿 크기의 불어 판을 인쇄했다는 바로 그 사실은 1564년에 이미 거기에 압력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 준 것이었다. 1564년과 1565년 초 사이에 그 *Discours*는 또 하나의 여호수아 주석 인쇄를 포함하여 불어 판으로 여덟 권이 나왔다.⁸⁾ 「위대한 인물들의 역사」(*Histoire d'excellens personnages*)로 선별되었는데, 1555년의 초판에서는 루터(Luther), 오이콜람파디우스(Oecolampadius), 츠빙글리(Zwingli)의 불어 판 전기들로 구성되었다.⁹⁾ 그것은 라틴어, 영어, 독일어로도 번역되었다.¹⁰⁾

다른 개혁자들의 전기와 달리 칼빈의 전기는 광범위하게 개정되고 번역된 것이었다. 이리하여 불어 판은 니콜라스 콜라동(Nicolas Colladon)이 증보하여 1565년에 칼빈의 *Commentaires svr le liure de Iosué*의 서문으로 출판된 것이 첫 번째였다.¹¹⁾ 이 판은 1565년과 1663년 사이에 다섯 번 재판되었는데, 둘이 개별적으로 그리고 주석의 일부분으로 재판되었다. 결국 1575년 베자는 그가 편집한 *Ioannis Caluini Epistolae et responsa*의 새로운 판의 부록으로 그 전기를 완전히 다시 썼는데, 그것은 이어서 1576년과 1657년에 재편집되었다.¹²⁾ 똑같은 판의 그 전

8. See Gardy, nos. 175-182.

9. Cf. article by Marianne Carbonnier-Burkard, "Une histoire d'excellents personnages" in *Les deux Réformes chrétiennes. Propagande et diffusion*, ed. Ilona Zinguer and Myriam Yardeni, Leiden: Brill, 2004, 43-59. 이것은 개혁자들의 전기들 선집을 만들려 한 매우 희박한 시도들 중 하나로서 다소 얇아졌다.

10. See Gardy, nos. 184-187.

11. *Commentaires de M. Iean Calvin svr le liure de Iosué, Avec une Preface de Theodore de Besze, contenant en brief l'histoire de la vie et mort d'iceluy: augmentee depuis la premiere edition deduite selon l'ordre du temps, quasi d'an en an*..... A Geneve, De l'imprimerie de François Perrin, 1565. Cf. Gardy, no. 189, p. 112. 나는 여기에서 *Ioannis Caluini opera quae supersunt omnia*, ed. G. Baum, E. Cunitz, E. Reuss, vol. 21, Braunschweig: Schwetschke, 1879(cited hereafter as *Calv. Opp.*, 21), col. 50-115를 언급할 것이다.

12. *Ioannis Caluini Epistolae et responsa*..... *Eiusdem I. Caluini Vita a*

기는 또한 1617년 판 칼빈의 신학작품과 1654년 라이덴 판 「기독교 강요」(*Institutes*)에 삽입되었다.¹³⁾

다른 종교개혁자들의 전기는 한 작가에 의해 한 번 쓰여진 것 외에 개정되지 않았는데도 칼빈의 전기는 왜 두 번이나 개정되어야만 했을까? 그 전기들 중 어떤 것도 1564년 판 *Discours*의 출판자가 소망한 것처럼 광범위하지 않았다면, 포괄성만이 그 유일한 동기가 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세 종류의 책들을 검토하기 전에 니콜라스 콜라동의 역할에 대해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의 이름은 그 저서에서 결코 나타나지 않으며, 신학논문(Tractatus theologici) 두 번째 책에서 묘사하는 그의 또다른 클라우디우스 변명(Apologia altera ad F. Claudium de Xaintes)에서 오직 베자가 상당히 드러내기 때문에 그가 두 번째 전기의 저자였다고 우리는 알고 있다.

칼빈이 이 생을 떠날 때에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는 엘리사(Elisha)의 말을 칼빈 뒤에서 외친 사람은 바로 나였다고 당신은 말한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아는 것처럼 이 전기를 쓰거나 출판한 사람은 내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전 동료 니콜라스 콜라동이다. 비록 내가 불어 판 여호수아 주석에 쓰고 칼빈의 삶과 죽음을 다루는 서문을 그 안에 그가 포함시켰을지라도 그러하다.¹⁴⁾

Theodoro Beza Geneuensis ecclesiae ministro accurate descripta..... *Omnia nunc primum in lucem edita*, Geneva, Pierre Saint-André, 1575. Cf. Gardy, no. 200, p. 119. 나중 판들은 *ibid.*, nos. 201-203, 206을 보라.

13. See Gardy, no. 204-205.

14. See *Ioannis Caluini opera quae supersunt omnia*, ed. G. Baum, E. Cunitz, E. Reuss, vol. 21, Braunschweig: Schwetschke, 1879(cited hereafter as *Calv. Opp.*, 21), 10: "Ego historiam illam quod omnes hic norunt neque scripsi neque edidi sed qui tum erat mihi collega Nicolaus Colladonius, quamuis in eam sit translatum quod de Caluini vita et obitu quadam in Iosuaam praefatione Gallica fueram praefatus."

하지만 콜라동이 그 저자라고 베자가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은 어느 곳에서도 나타나지 않았다.¹⁵⁾ 1983년 다니엘 메나저(Daniel Ménager)는 헤르민자드(Herminjard)에 이어 일인칭으로 언급한 것들이 베자에게 적합하고 콜라동에게 적합하지 않으므로 베자 자신이 그 저자라는 것이 훨씬 더 개연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왜 그런 속임수를 썼을까? 메나저에 의하면 책 제목으로 작용하는 열왕기하 2:12에 대한 언급 때문이었다. 거기에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엘리사가 보고,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사며 마병이시여!”라고 외치고 있다. 그 구절 자체는 충분히 흠이 없고, 칼빈과 엘리야를 동일시하고자 하는 소망으로 취해질 필요가 없었다. 베르트홀트 할러(Berthold Haller)는 어떤 종말론적인 함축성 없이 베자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그것을 사용하여, 단지 참조인물이 사망했다는 것을 의미했다.¹⁶⁾ 하지만 칼빈의 가톨릭 대적자들, 특히 1567년의 클라우드 드 세인츠(Claude de Saintes)는 재빨리 그것을 프로테스탄트 숭배의 징조로 보았다. 이것은 시모니우스(Simonius)와 같은 프로테스탄트들이 (1567년에도 역시) 표현한 관점, 즉 칼빈의 전기들이 프로테스탄트들을 그리스도보다 더 칼빈을 숭배하는 자들이라는 비난을 받기 쉽게 할 것이라는 사실과 결부되었다.¹⁷⁾ 메나저에 의하면 이러한 요인들은 결합되

15. Daniel Ménager, “Théodore de Bèze, biographe de Calvin,” in *Bibliothèque d’Humanisme et Renaissance* 45(1983), 231-255, esp. 244-247.

16. *Correspondance de Théodore de Bèze*, vol. 5, p. 85 Haller to Beza, 23 June 1564: “Quamuis non possimnon plurimum dolere propter obitum clarissimi et maximi viri D. Caluini et cum Eliza대 clamare: ‘currus et auriga Israelis,’ tamen illi gratulor quod Dominus ipsum ex miseriis huius mundi et praesenti saeculo malo liberavit et ad regnum suum coeleste transtulit.” 이 구절을 인용하는(pp. 245-246) 메나저(Ménager)는 그의 친구들과 제자들이 칼빈과 엘리야를 동일시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으로 본다. 하지만 그 인용문과 “tamen illi gratulor……”로 시작하는 문장의 일부는 할러(Haller)가 그것을 메타포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17. Ménager, 246.

어 충분히 베자로 하여금 1568년에 쓴 두 번째 전기의 저작권을 부정하게 했다. 하지만 이것은 그리고 나서 그가 왜 1575년에 또 하나의 전기를 썼는지를 설명해 주지 못한다. 유일한 이유는 첫 번째 것이 너무 짧았고, 두 번째 것은 비록 더 풍부할지라도 너무 비난 받기 쉽고, 어떤 의미에서 전기작가로서 그의 평판이 나빠질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으리라는 것이다.

그는 드 세인츠(de Saintes)에게 보내는 그의 답장에서 그것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왜 그 전기를 콜라동의 것이라고 했을까? 콜라동은 확실히 자기가 그 저자라고 인정하지 않았지만 또한 그것을 부정하지도 않았다. 더욱이 그의 요한계시록 주석이 보여 주듯이 콜라동은 종교개혁의 종말론적 의미에 관하여 베자(혹은 그 문제에 대해 칼빈)¹⁸⁾보다 훨씬 더 명백했고, 그가 알고 있다고 자랑한 칼빈의 생애의 숨겨진 세부사항들을 드러내도록 위탁되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종말론적 함축성을 지닌 성경 인용문이 있다면 그것은 콜라동에게 돌려질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두 번째 전기와 다른 둘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점 때문에 저자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는 그 전기들을 연대기적 순서로 검토할 것이다. 그 논문이 포시디우스(Possidius)의 어거스틴 전기와 공통적인 것은 무엇인가? 첫째, 그것이 출판된 방법, 즉 성경 주석의 서문으로 출판된 방법이 같다. 이렇게 해서 베자는 신중하라는 칼빈의 소원을 존중하기 원했다는 것이 정당할지라도, 1484년부터 발간되어 이용할 수 있는 포시디우스의 전기는 처음에 어거스틴의 선집 서문으로 출판되었다. 그 전기의 구조와 내

18. See Irena Backus, “The Beast, Interpretations of Daniel 7, 2-9 and Apocalypse 13, 1-4 in Lutheran, Zwinglian and Calvinist Circles in Sixteenth Century,” *Reformation and Renaissance Review*, 2000: 3, pp. 59-77. Eadem, *Reformation Readings of the Apocalypse: Geneva, Zurich and Wittenberg*(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66-74.

용은 베자가 칼빈의 전기를 구성한 방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무엇보다도 포시디우스는 어거스틴의 생애에 관하여 연대기적인 보도를 했고, 그 다음에 그의 영웅의 도덕적인 면에 대해 한 부분을 할애하고, 그의 마지막 생애와 죽음에 대해 한 부분을 할애했다. 그는 설명하는 동안 내내 은혜의 역할, 어거스틴이 북아프리카 교회에 기여한 봉사, 이단들에 대한 그의 투쟁 등을 강조했다. 그는 어거스틴의 공적인 도덕과 사적인 도덕 모두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그가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죽었다는 것을 강조했다. 베자는 다소 다른 상황 속에서 칼빈의 전기를 저술했다. 그는 「고백록」(Confessions)처럼 의존할 것이 없었고 개인적인 요소를 제거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신중하게 다루기를 원했다. 참으로 베자는 자신을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 왔던 다른 전기작가들과 구별하여, 칼빈의 교리와 당시의 이단들에 대항한 투쟁에 대한 보도로 그의 전기를 시작한다.

첫 번째로 내가 다룰 그의 교리에 관해서 말하면, 그것은 그것을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의심스러운 것이 되게 하는 진리이기는커녕 반대로 그 견고성에 대한 훌륭한 논증으로 도움이 된다. 이것은 특별히 그것을 반대했던 사람은 아무도 그들이 바로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한 종이었던 한 사람을 비판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¹⁹⁾

칼빈이 논쟁한 모든 이단들의 연대기적 목록이 뒤따른다. 베자는 그

19. Beza, Discours, p. 4 : "Or, quant à sa doctrine, de laquelle je veux parler en premier lieu, tant s'en faut que la multitude de ceux qui luy ont contredit la doivent rendre suspecte envers toutes gens de bon jugement qu'au contraire cela seul pourroit servir de certain argument pour l'approuver, d'autantque nul ne s'y est jamais opposé qui n'ait expérimenté qu'il s'adressoit non point contre un homme, mais contre un vray serviteur de Dieu."

목록을 두 부분으로 나눈 것 같다. 첫 번째 부분은 주요한 이단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두 번째 목록은 종속적인 이단들을 포함하고 있다. 두 번째 대열에는 피기우스(Pighius), 사돌레(Sadolet), 요아킴 베스트팔(Joachim Westphal), 그리고 틸레만 헤스후센(Tilleman Hesshusen)을 포함한다.²⁰⁾

비록 베자가 그렇게 말하지는 않을지라도 그들이 '두 번째 서열'에 들게 된 것은 첫 번째 범주와는 다르게 그들 모두가 기존 교회에서 나왔다는 사실 때문이다. 카스텔리오와 바우두인(Bauduin)은 같은 부분에 있다. 베자의 전기에서 명백하게 '포시디우스적이지 않은' 특징들 중 하나는 1563년 카스텔리오의 죽음으로 끝난 칼빈과 그와의 불일치한 면에 대한 긴 부록이다. 비록 그것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불안했을지라도, 그는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러한 경교의 교화적인 가치에 호소함으로써 정당화시킨다.

마치 내가 지나친 열정으로 말해서 죽은 자들로 하여금 무덤에서 쉴 수 없게 하는 것처럼, 이 긴 이야기는 어떤 사람들을 불쾌하게 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가 살아 있을 때 그를 결코 미워하지 않았다는 것과 선한 것이나 나쁜 것이건 그와 개인적인 거래를 결코 하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의 책들을 멀리 하고 그가 뒤에 남긴 제자들을 멀리하도록 이것을 말하고 싶다.²¹⁾

20. Beza, Histoire de Calvin, 259-264.

21. Beza, Discours, p. 15 : "Je sçay bien que ce long discours sera trouvé mauvais par aucuns, comme si j'en parlois en homme passionné et ne pouvois même souffrir les morts se reposer en leur sépulchre, mais je puis protester devant Dieu que jamais je n'ay hay le personnage vivant, avec lequel aussi je n'eus jamais affaire particulier en bien ni en mal ; tant s'en faut que maintenant je voulusse hayr et pourchasser les morts qui sont remis au jugement du Seigneur. Mais il a falu que cecy fust entendu afin que chascun se garde de ses livres et disciples qu'il a

카스텔리오는 1563년에 죽었지만 그 이래로 그의 종교적 관용론을 담은 'Conseil à la France désolée'는 프랑스에서 공명을 얻었고, 여전히 제네바 종교개혁의 진행에 위협을 줄 수 있었을 것이다.

포시디우스의 어거스틴 같은 베자의 칼빈은 대부분의 생애를 이단과 투쟁하면서 보낸 모범적인 교인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므로 베자는 그가 보기에 "그가 말한 것, 즉 그가 쓴 것에서, 그리고 그의 도덕과 삶의 방식에서 하나의 영원한 교리"였던 칼빈의 생애 중 주요한 부분을 설명하는 데 진력한다고 결론짓는다.²²⁾ 하지만 베자는 그의 전기를 거기에서 멈추지 않는다. 그가 그렇게 했다면 그는 전기보다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칼빈에 대한 설명을 좀더 많이 했을 것이다. 어거스틴의 생애에 대한 사실적 보도와 그의 공적이고 사적인 도덕에 대한 묘사를 분리시킨 포시디우스와 다르게 베자는 그 둘을 뒤섞는다. 칼빈의 태생과 교육에 대한 표준적인 설명을 하고 난 후에, 그의 제네바로부터의 추방과 귀환에 대해 이상적인 설명을 한다. 나머지 보도에서 그는 그 주제의 공적이고 사적인 도덕을 뒤섞는다. 그에 따르면 칼빈은 전적으로 완전하고, 교회를 봉사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했다. 그의 건강은 매우 허약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어깨 위에 부과하신 예외적으로 무거운 책임을 견뎌 냈다. 그는 특별한 절제력을 지녔고, 그의 생애 대부분은 매일 24시간에 한 끼 먹는 걸로 만족했다. 어떤 사람들의 비난과는 반대로, 그는 적어도 허영심이 강하거나 야심적이지 않았고, 결코 그의 지위를 남용하지 않았으며, 그의 동료들과 상의하지 않고는 결코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도 않았다.

laissez après luy."

22. Beza, Discours, p. 17: "Voilà les principaux combats que ce bon personnage a soustenus heureusement pour la vérité du Seigneur. Au reste par ce discours je pense avoir traité la plupart de sa vie, car qu'a-ce esté autre chose de sa vie qu'une perpetuelle doctrine, tant par paroles que par escrits, et par toutes ses moeurs et façons de vivre?"

그의 복장과 그의 가정에 있는 가구는 최고로 소박했다. 그는 결코 그의 저작을 중요한 후원자들에게 헌납하지 않았다.

어거스틴과 대조적으로 비록 칼빈은 결혼했을지라도, 그에게라기보다는 그와 가까운 사람들(사실상 그의 처제)을 겨냥한 간통에 대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그의 결혼은 가장 순결하였다. 그러나 베자에 의하면, 그와 비슷한 일들이 야곱과 다윗의 집에서도 일어났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그를 의심까지 할 수 있을 사람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 …… 그는 정결한 결혼생활을 하며 약 9년간 살았다. 그의 부인이 죽은 후 그는 죽을 때까지 16년간 홀로 지냈다. …… 누가 이보다 더 강력하게 간통을 멀리할 수 있겠는가? 주님이 이것에 대해 그와 가까웠던 사람들을 통해 시험하셨다는 것은 사실이다. 더 나쁜 일들이 야곱과 다윗의 집에서 발생했다.²³⁾

베자에 의하면, 칼빈은 순결했던 것 외에 이단들을 향해 관용적이었고, 아무도 성마른 기질과 혼동할 수 없을 열심을 지녔다. 그가 훌륭하게 죽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²⁴⁾

이러한 요약은 베자가 그의 첫 번째 칼빈 전기에 포시디우스적인 모델을 조화시켰다는 점을 보여 주기에 충분하다.

23. Beza, Discours, pp. 33-34: "Mais il est a naistre qui jamais en ait mesmes soupçonnés celuy don't nous parlons en lie où il ait conversé. Il a vescu enuiron neuf ans en mariage en toute chasteté; sa femme estant décédée, il a demeuré en viduité l'espace d'environ 16 ans et jusques à la mort…… Qui a esté le plus rigoureux ennemi de toute paillardise? Il est vray que le Seigneur l'a excrcé sur ce fait en des personnes qui le touchoyent de près. Il est arrivé pis encore en la maison de Jacob et de David."

24. W. Lindanus in his Historia tragica of 1564(French version: Discours en forme de dialogue ou histoire tragique, Paris, G. Chaudière, 1566) mentions that most of the reformers encountered bad and ignoble ends (cf. Chaudière, 147r.).

정황, 시대, 사람들의 차이점은 고려하면서 어거스틴의 전기작가처럼 베자는 칼빈이 이단들에 대한 투쟁, 교회에 행한 봉사, 신적 은총의 간섭, 그의 공적이고 사적인 도덕성의 고차원적 수준, 그리고 특히 그의 순결에 대해 주장한다. 포시디우스처럼 베자는 심리학적인 통찰에 대해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다.

2. 콜라동 : 무엇이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칼빈에 관한 칼빈주의자인가?

칼빈의 삶 가운데 일어난 사건들을 엄격하게 연대기적인 순서로 배열함으로써 콜라동은 포시디우스적인 모델을 채택하지 않는다. 이제 칼빈의 전기는 사건들에 더 많이 초점을 맞추는데, 이것은 곧 그 종교개혁가가 정적인 모델이라기보다는 주위 환경과 상호 작용하는 사람으로 보여진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그 전기를 역사적 전기의 현대적 개념에 훨씬 더 가깝게 할 것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여러 이유들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

첫째, 그 전기작가의 목적은 그의 주제를 당시의 역사 속에 위치시키려는 것이 아니고,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 자신을 구두로 그리고 저술로 교화시키려고 그가 죽는 날까지 기록한 견인으로”²⁵⁾ 그 분이 안아 주셨다는 것을 그의 삶이 보여 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리하여 발생하는 것은 모두 오직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콜라동이 강조한 것처럼 칼빈의 생애는 오직 섭리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섭리적 틀에서 표현될 지라도, 콜라동의 전기는 *Discours*에 나타나지 않는 온갖 종류의 칼빈에 관한 일화를 포함하고 있다. 동시에 그는 베자보다 훨씬 더 칼빈의

25. Calv. Opp., 52-53.

저서들에 열중하여 신중하게 그것들을 연대순으로 배열한다. 메나거가 지적했던 것처럼²⁶⁾ 콜라동은 칼빈이 1536년 바젤로 가는 길에 말 도둑을 만났던 일,²⁷⁾ 1547년 12월 16일 생명의 위험을 각오하고 200인평의 회의 반란을 진압했던 일,²⁸⁾ 혹은 그의 친구들이 그에게 더 이상 가짜 유물에 대한 실례들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골들에 대한 글」(*Traité des reliques*, 1536)의 재판을 발행하지 않았으며 그들과 농담했던 일²⁹⁾ 등과 같은 일화들을 소개한다. 그는 또한 칼빈의 지적인 은사, 특별히 그의 기억력에 대한 특별한 지식을 지적하고, 그 경이적인 역량의 몇몇 예들을 인용한다.³⁰⁾

이 일화들은 독단적인 것이 아니고, 메나거에게는 실례지만, 단지 그 보도를 활성화시키려는 것도 아니다. 일반 대중은 관여되지 않은 대화들을 칼빈에게서 들은 친구들 중의 하나로 자신을 제시하는 것은 콜라동이 유명하다고 주장하는 요소들 중 하나였다.³¹⁾ 그 일화들은 그 보도를 인증하면서 동시에 저자로서의 그를 지목하기 위한 것이다.

그의 칼빈 전기의 다른 특징은 연대기적 모델에 따른 연도별 기초 위에 세워진 구조이다. 이것은 그가 현대적인 의미에서 전기나 일대기보다 일련의 투쟁들을 그 구성요소로 조직화한다는 의미이다. 우리는 더 나아가 그가 낱말들을 인용하는 것을 주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것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다. 콜라동은 부분적으로 칼빈의 출판된 저작들의 정확한 연대를 수립하려는 욕망으로 자극 받아, 그 사람은 곧 교리라고 베자가 최초로 주장한 것을 재강화한다.³²⁾ 하지만 그는 또 칼

26. Ménager, 243.

27. Calv. Opp., 21, 53.

28. Calv. Opp., 21, 69.

29. Calv. Opp., 21, 68.

30. Calv. Opp., 21, 108-109.

31. 그가 요한계시록에 관한 칼빈의 관점을 아는 특권을 가졌다는 그의 주장에 대하여는 Backus, *Reformation Readings*, 71-73을 보라.

32. 예를 들어 Calv. Opp., 21, 62-63을 보라. “Davantage il commen a à

빈 시대 동안 하나님께서 제네바의 역사에 직접 개입하셨다는 것을 보이기 시작하는데, 1541년에 있었던 그의 귀환부터 시작한다.

이리하여 그것은 1541년 9월 13일 제네바에서 재개되었는데, 거기에서 그의 동료 비레(Viret)를 만났다. 이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가 제네바 사람들에게 보여졌다. 왜냐하면 만일 고대 사람들이 모세를 거부했을 때, 해방이 40년 동안 지연되었다면, 제네바 사람들은 사단과 로마의 반그리스도의 독재 아래 영원히 노예생활해야 마땅하지 않은가? 즉, 그것(제네바 사람들)이 신실하고 탁월한 하나님의 종들이 칼빈과 그의 동료들을 거부했을 때, 그래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하지만(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이 교회의 체제를 오직 3년 동안만 지연되게 허용하셨다.³³⁾

칼빈의 투쟁(certamen)은 그의 죽음으로 끝나게 되는데, 이것을 콜라동은 결국 공적인 기능을 수행했던 하나님의 참된 종의 죽음의 패러다임으로 묘사했다.

다음에는 부분적으로 칼빈이 야망과 도덕 등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그것은 *Discours*에서보다 더 명백히 변명하는 색채를 띠었다. 콜라동이 한 것은 칼빈의 생애와 일에 관해 훨씬 더 변명적인 보도로 쓰였는데, 그것은 명시적으로 개인적인 지식 위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이 틀에 꼭 들어맞도록 기록되어 왔던 *Discours*를 완전히 바꾸어 놓는다.

escrire sur saint Paul, dediant son commentaire de l'Epistre aux Romains à M. Simon Grynée, le plus docte des allemans et son grand ami. La date dudit Commentaire est de l'an 1539, le 18 octobre. Aussi il escrivit en François un petit Traité et bien familier, de la Cene du Seigneur pour l'usage de ceux de la langue Françoise....."

33. Calv. Opp., 21, 64.

3. 베자의 두 번째 칼빈 전기

베자의 두 번째 칼빈 전기는 프로테스탄트 진영에서 어떤 개혁가의 전기를 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점진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그 다음의 발전 단계를 대표한다. 베자가 그 전기를 칼빈의 서신에 첨부하는데, 이렇게 하여 전기와 서신을 문서 자료로 결합시키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가 그의 저술이 서신들에 기초하고 있다고 시사하는 곳은 아무 곳에도 없는데, 그 서신들은 공적인 용도로 매우 주의 깊게 발췌된 것으로 알고 있다.³⁴⁾ 그 서신들의 기능은 그 종교개혁가의 어떤 이미지를 확증하는 것이고, 독자로 하여금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게 하거나 그에 관하여 아직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다.

사실상 우리와 관계있는 기간의 호의적인 종교적 전기의 특징이 경건한 신자들이 기대하는 것만, 혹은 공적인 에티켓이 요구하는 것만 드러내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정당하다. 칼빈의 세 전기 모두에서 칼빈이 똑같이 드러난다는 것은 그 셋의 두드러진 특징이다. 저작들이나 일화들의 날짜들과 같이 부가된 새로운 사실들은 그의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선택된다.

1575년 베자는 성인-경배에서 유추하여 칼빈 제의를 창조하는 문제에 정면으로 도전해야만 했다. 그는 *Discours*가 채택한 모델을 버리고 두 번째 전기에 관한 연대기적 설명을 어느 정도 다듬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방법론적이고 관념론적인 칭의론을 더했다는 것이다.

34. Ménager, 249-251, 특히 250을 보라. "La Correspondance, déjà soigneusement triée pour n'offenser ni la mémoire de Calvin, ni la susceptibilité des destinataires, ne passe pas finalement dans la biographie."

무지해서 그 사상을 지니고 있는 자들과 악한 자들로 하여금 성인들을 경배하는 우상숭배자들과 우리를 매도하면서, 마치 루터, 츠빙글리, 칼빈이 신인 것처럼 경배한다고 우리를 비난하게 놔둬라. 그들이 원하는 만큼 크고 길게 소리 지르게 하라. 우리는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종류의 집필에서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 되는, 거룩한 사람들이 종교를 위해 수행하거나 말한 노동과 언행을 기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은 별개의 일이다. 왜냐하면 선한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알게 됨으로써 더 좋게 되지만 악한 사람들은 비난 받기 때문이다. 그들이 행한 것을 기념하는 것과 그들처럼 행하는 것은 별개의 것인데, 그렇게 행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Abdias가 누구였든지, 그가 사도들의 전기들을 다룬 것) 만큼 불경건한 이야기들로 거룩한 사람들의 삶을 훼손하거나, 혹은 가장 혐오스러운 거짓말들(일반적으로 야만적인 단어로 된 황금의 전설들이라고 불리는 것들이지만, 나는 그것들을 제거해야 할 혐오스러운 전설들이라고 부른다.)로 이야기를 꾸며대거나, 그래서 결국은 단지 바뀐 이름으로 이교 신들의 이미지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³⁵⁾

종교개혁가들의 전기의 기능은 도덕적이고 교화적인 것이다. 그것들은 성인들의 전기들과 관계없고 사실과 허구를 혼합시키지 않는다. 그 전기들은 주인공들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졌다고 말하지도 않고, 그들을 경배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한 것도 아니다. 그 장르를 정의하려는 시도에서, 베자는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모든 작품들 중에서 무엇보다도 인간이 인정받고 영화롭게 되며, 이 인간들 중에서 특별히 그들의 가르침과 숭고함으로 구별되어 온 자들은 더욱 그러하다고 시인하는 사람이 없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길을 지시해 주는 위업을 지닌 거룩한

35. Calv. Opp., 21, 119-120.

사람들을 다니엘(Daniel)[12, 13]의 별에 비유하는 것은 그냥 그러는 것이 아니다. 임종 때 자기들의 빛을 완전히 소진되게 하는 자들은 전보다 훨씬 더 짙은 어둠에 사로잡혀 마땅하다.³⁶⁾

이것을 인정함으로써 베자는 1530년대 초부터 조용히 구체화되어 왔던 전통을 확증한다. 이 전통은 한편으로는 중세의 성인전들을 거부하고 포시디우스적인 모델이나 이교적인 모델의 용도에 대해 다소 막연한 입장을 지지하면서, 정선된 개인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중요하다라는 것과 그들의 전기가 신자들의 영적인 여정에 있어서 확실한 목적을 가진다는 점을 확인한다. 베자와 우리가 지금까지 숙고한 다른 모든 전기작가들은 그들이 다루는 대상을 탁월한 개인으로 나타낸다. 베자가 다른 사람들보다 한 단계 앞서 가는 것은 문학장르의 문제를 직면하는 데 있다. 그가 전설적이거나 기적적인 요소들을 더하지 않은 것을 인정한다면, 어떻게 그는 그의 주제를 표현해야 했을까?

나는 진리를 주장하기보다는 찬양문이나 과시적인 스타일을 채택함으로써 어떤 사람들에게 진리를 의심스럽게 하는 자들을 흉내 내고 싶지 않다. 그러므로 나는 가능한 한 꾸며서가 아니라 참되게 쓰려고 노력해 왔고 단순한 내러티브 스타일 사용하기를 선호해 왔다.³⁷⁾

분명히 진부한 이 문장은 *Discours*에서 보이지 않았던 방법론적인 자각을 드러내 준다. 1575년 베자는 의식적으로 장례식용 송덕가의 변형으로써의 고대 전기 모델과 성인들의 전기 모델 둘 모두에서 떠난다. 종교개혁가의 전기, 특히 칼빈처럼 중요한 전기는 그 자체의 법을 따라야 한다. 콜라동은 단순성을 위해 칼빈의 전기를 연대기적 순서로 시작

36. Calv. Opp., 21, 120.

37. Calv. Opp., 21, 120.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그 경향을 확립시켰으나, 그 장르를 정의한 사람은 바로 베자이다.

프로테스탄트 전기는 기적적인 것이나 전설적인 것은 어느 것도 혼합시키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진실해야 한다. 그것은 또한 옛 이교도 영웅들의 전기와 구별하기 위해서 명료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의 목적은 신자들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므로 신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영감의 역할 모델이나 자료를 제공해 줌으로써 로마제국의 전기들의 중요한 요소들을 보존한다. 요약된 형태로 단지 그의 죽음을 설명한 다음일지라도, 세 번째 칼빈 전기가 그 주제를 수에토니우스(Suetonius)만큼 그리고 바로(Varro)의 이미지 정신으로 신체적인 묘사를 출판한 첫 번째 프로테스탄트 전기라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베자는 그가 중간 키이며, 그가 죽을 때까지 눈빛이 빛나서 예리한 통찰력이 있어 보였고, 피부가 매우 창백했다고 묘사한다.³⁸⁾ 베자는 분명히 5년 후에 「상상」(*Icones*)에서 구체화시킬 프로테스탄트 전기의 개념을 발전시키는 과정에 있었다. 그것에 따르면 그 영웅은 특수한 기독교적 색채를 띠면서 로마제국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전기 전통 속에 위치되었다. 이것은 어떤 표준화나 상징화를 수반하는데, 콜라동이 칼빈의 인격과 도덕성을 상세히 방어한 것을 베자가 상당히 격하시킨 이유가 된다. 비록 칼빈이 거짓 기적들을 포함하여 모든 것이 지나치다고 아직도 비난 받는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을지라도,³⁹⁾ 어떠한 사과도 상세히 요청하지는 않는다. 더욱이 야망, 잔인성, 탐욕 등에 대한 비난을 진부한 것으로 버린다.

고대 이교(Pagan Antiquity)의 모든 위대한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과

38. Calv. Opp., 21, 170. "Statura fuit mediocri, colore subpallido et nigricante, oculis ad mortem vsque limpidis."

39. 이러한 비난은 1564년 W. Lindanus에서 처음으로 나타난다. Discours의 불어 판 en forme de dialogue ou histoire tragique(Paris : G. Chaudière, 1566)에서 128r에 나타난다. 그것은 여러 가톨릭 저자들이 취급했다.

또한 그와 비슷한 죄가 있다는 비난을 받는다고 그는 주장한다. 하나님의 참된 종들에 관해서는 그것들이 언제나 불명예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의 전기 세 번째 판에서 칼빈은 "기독교의 헤라클레스"(Hercules Christianus)의 지위까지 올라간다.⁴⁰⁾

최종판으로 된 베자의 칼빈 전기는 새로운 형식의 종교적 전기의 시작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개인들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개념의 시작으로 표시된다. 기대될 수 있는 것과는 반대로 칼빈은 성인이 아니며, 프로테스탄트의 예정론 개념을 고려한다면 또한 하찮은 사람도 아니다. 베자는 20세기까지 번식하고 재네바 종교개혁 기념비에서 완전히 나타나는 기독교 영웅의 개념을 칼빈 전기에 삽입한다.

4. 제롬 볼섹

1577년 제롬 볼섹(Jerome Bolsec)은 베자의 첫 번째 칼빈 전기에 대한 반응으로 칼빈 전기를 썼다. 볼섹을 자세히 소개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 그의 말년에 가톨릭교회로 돌아갔고, 프랑스에서 거주하며 칼빈 전기(1577년)와 베자 전기(1582)를 출판했다고만 말해 두자.⁴¹⁾

비록 그가 칼빈과 논쟁하면서 그의 일생 대부분을 소비했을지라도, 그가 출판한 두 전기들은 1564년에 사망한 「기독교 강요」의 저자를 공격하기보다는 베자를 공격하려는 것이었다. 그의 전기들이 중요한 것은 그것들이 적대적이라는 점이 아니라 뒤쁘로(Dupréau), 린다누스(Lindanus), 플로리몽 드 레몽(Florimond de Raemond), 혹은 라우렌

40. Calv. Opp., 21, 170.

41. 볼섹에 관해서는 Philip Holtrop, The Bolsec Controversy on Predestination from 1551 until 1555, Lewiston, Idaho and Lampeter, UK, 1993과 위에서 인용된 문헌을 보라.

티우스 수리우스(Laurentius Surius)와 같은 로마 가톨릭 저자들이 보는 칼빈에 대한 전기적 관점들에 반대하는 전기들로서 출판되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볼섹이 그 종교개혁가들 모두에 대한 징후를, 특히 칼빈이 부분적으로 베자의 전기 때문에 성인의 신분에까지 도달하게 되는 징후를 보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이 점에서 그는 성공적이었다. 칼빈, 베자, 그리고 제네바 종교개혁에 대한 그의 이미지는 베자가 공표한 프로테스탄트 성인이나 기독교 영웅의 이미지처럼 앞으로 올 세기에 보급될 것으로 판명될 것이었다. 볼섹은 프랑스에서 가능한 한 빠르고 효과적으로 제네바의 이미지를 파괴하고 싶어했다.

볼섹의 저작들이 실제로 참인지 거짓인지는 여기에서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그것들이 논쟁적 상황에서 일어났다고 말하는 것은 아주 조금만 말하는 것이다. 프로테스탄트 성인들이 존재한다는 어떤 암시가 어떤 가톨릭 집단에서 위협이 되었고, 그렇지 않았다면 볼섹의 저작들이 영구적으로 성공을 거두지 못했을 것이라는 점을 주목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리옹(Lyon)의 대주교이며 프랑스의 대주교인 페에르 데스펜(Pierre d'Espine)에게 보내진 초판 서문에서,⁴²⁾ 볼섹은 고대 전기 장르와 그것을 자기 자신이 왜곡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참으로 적대적인 전기들은 고대에 저술되지 않았다. 고대 법률가들은 기소하려는 검사로서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고객들을 방어하는 데 있어서 수사학적인 솜씨 발휘하기를 더 좋아했다. 그는 키케로(Cicero)의 현존하는 공소문들 중에서 탐욕스럽고 음탕하다고 악명 높은 시킬리(Sicily)의 총독인 베레스(Verres)에 적대적인 것들을 뽑아낸다.⁴³⁾

42. Pierre d'Espine에 대하여는 xxx를 보라.

43. 그 서문은 1580년 판 전기의 라틴 번역서(*De Ioannis Caluini magni quondam Geneuensium ministri vita, moribus, rebus gestis ac denique morte, Historia ad reuerendissimum archiepiscopum et comitem Lugdunensem per Hieronymum Bolsecum medicum Lugdunensem conscripta et nunc ex*

고대 전기 양식을 잘 피하면서, 볼섹은 죽은 자에 대하여 나쁘게 말하지 않는 기본적인 수사학적인 법칙을 경멸한다.⁴⁴⁾ 하지만 그는 그러한 비난을 피하는 한 가지 길은 “죽음 후에는 칭찬을 해야 한다.”는 속담이 다음과 같은 것으로 재해석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단 죽은 사람은 모두 칭찬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애에서 위대하고 혁혁한 일을 한 사람들은 아직 살아 있을 때에 아첨을 조장하지 않기 위해 지나친 칭찬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무슨 선한 일을 했는지 무슨 악한 일을 했는지를 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들의 생애 마지막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⁴⁵⁾

볼섹은 이렇게 베자와 그의 찬양하는 Discours와 대조적으로 “그가 요한 칼빈이 죽은 후에 그의 많은 사악한 행위들을 공개적으로 이끌어 내기를 원했다.”고 생각할 많은 사람들의 눈에 자신을 정당화시킨다.⁴⁶⁾ 그는 방어할 때 플라톤을 인용하는데, 플라톤에 따르면 “야비한 행위에 빠져 있으면서도 훌륭한 사람으로 통하고…… 최고의 공적 위치에 올라가는 사람은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을 정도로 나쁜 사람으로 인정된 모든 시민들보다 공공복리에 더 많은 해를 끼친다.”⁴⁷⁾ 고 했다.

gallico eius Parisiis impresso exemplari Latine reddita, Coloniae, apud Ludouicum Alectorium et haeredes Iacobi Soteris, anno 1580. Hereafter : Bolsec, Calvin, 1580.), 3-7에 포함되어 있지만, 제임스 라잉(James Laing)의 것들도 포함하고 있는 그 이후의 판들과 번역서들에서는 사라진다.

44. Bolsec, Calvin, 1580, 3: “Et surdo maledicendum etiam non esse vulgo iactatum prouerbium est, quod de absente vel de vita functo potest intelligi. Atque huc etiam pertinet quod non minus vulgo dicitur, nimirum vt post funera atque mortem laudes.”

45. Bolsec, Calvin, 1580, 3-4.

46. Bolsec, Calvin, 1580, 4.

47. Bolsec, Calvin, 1580, 4.

그는 첫 번째 칼빈의 적대적인 전기작가인데, 프랑스에 미치는 그 개혁가의 비참한 영향력과 그의 '조국과 이웃 나라들'이 무자비하게 파괴 되는 데에 미치는 그의 역할에 대해 주장하였다. 볼섹에 따르면, 칼빈은 로마 가톨릭교회의 수많은 단순한 영혼들을 돌이키는 데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었다. 하지만 그의 실제 적은 칼빈이라기보다는 베자였는데, 베자는 볼섹이 보기에 그의 멘토가 모든 사도들, 박사들, 그리고 그들의 후계자들보다 더 중요하고 더 순결한 삶을 살았다고 논문에서 감히 주장했던 것이다.⁴⁸⁾ 논문은 성인전적인 어조로 가톨릭 신자들을 프로테스탄트 진영으로 가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볼섹은 '베자의 거짓말에 반대하기 위한' 결심을 한 것이다.⁴⁹⁾

그는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워, 그 두 종교개혁자들 중 어느 누구도 개인적으로 싫어해서가 아니라 부분적으로는 진리를 앞에 내세우려는 열망으로, 부분적으로는 제네바 종교개혁자들이 파멸시킨 그 단순한 모든 영혼들에 대한 동정심이 동기가 되었다고 한다.⁵⁰⁾ 여기에서 한 가지 분명한 질문이 생긴다. 왜 볼섹은 그의 칼빈 전기를 출판하기 전에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는가? 그는 몇 년 동안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세웠지만, 온갖 하나님의 옛 적이 그의 길에 온갖 방해물과 장애물로 막았기 때문에 칼빈이 죽은 후 13년이 지나서야 첫 번째의 적당한 순간이 왔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체를 정당화시킨다.⁵¹⁾ 그 순간은 참으로 적

48. Bolsec, Calvin, 1580, 4-5.

49. Bolsec, Calvin, 1580, 5: "silentium abrumperet coactus sum vt eodem zelo atque spiritu qui me anno 1552 incitabat vt praesens praesenti in eo ipsi Geneuae coegerant coetu atque concilio palam resisterem etiam nunc permotus et instigatus manum calamo admouerem et Bezae me obuium obicerem eiusque mendacia confutarem quibus in magnum diuinae gloriae praeiudicium et ad ecclesiae domus Dei euidentem, qui malitiosissimus Sathanae minister fuit, eum syncerum ac praecellentem Dei seruum fuisse asserere ac praedicare est ausus."

50. Bolsec, Calvin, 1580, 5.

51. Bolsec, Calvin, 1580, 5-6.

절했는데, 1577년 6월에 베르주라크(Bergérac) 조약으로 끝난 제7차 종교전쟁 후 프랑스가 가장 약할 때와 일치하기 때문이다. 그때는 또한 신분들이 강화되고 드에스피네(d'Espine)와 제휴한 극단적 가톨릭 교도인 기즈(Guises)의 권력이 일어날 때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주장은 그와 반대되는 것이었다. 볼섹은 칼빈 자신에게라기보다는 그의 이름을 욕되게 하려는 그의 제자들에게 복수하려는 것이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칼빈파의 추종자들과 노예들은 온갖 종류의 치명적인 올가미를 나의 인격에 씌울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게 하려고 오늘날 까지 나와 전쟁을 해 왔다. 그들은 나에게 사악한 험담을 쓰고 나에게 온갖 종류의 거짓말을 퍼뜨릴 뿐 아니라…… 또한 나에게 적대적인 내밀한 편지들을 그들의 동료들에게 비밀리에 보내는데, 흔히 내가 알게 된다.⁵²⁾

그의 적들에 대항하고 자신의 결백함을 입증하기 위해 20년에 걸쳐 그가 맞섰던 그 칼빈주의 종교개혁 지도자의 명성을 비방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무엇이란 말인가? 볼섹의 이야기는 어떤 자료에 근거를 두고 있는가? 비록 그 자료들이 건전하다고 맹세할지라도 그의 진술을 검토해 보면, 그는 거의 공개적으로 거짓말, 소문과 풍문에 의지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그것들을 묘사한다.

그리고 나는 똑같이 하나님을 증인으로 불러서 내가 알고 있는 사실들과 양심에 역행하는 것은 어떤 것도 쓰지 않았다는 것과 내가 쓰는 것은 진리에 기초된 것임을 증명한다. 나는 그것을 칼빈 자신의 손에 있는 공적인 문서들과 보고서들에서 취했거나, 고위 당국자들의 구두 설명을 듣고 알게 되었거나, 혹은 그것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손으

52. Bolsec, Calvin, 1580, 6.

로 직접 만져 보았다.⁵³⁾

칼빈의 사악성을 입증한 칼빈 자신의 글들은 물론 공식적인 문건들도 없었다. 그 구절은 단순히 쓰여진 자료들을 객관적으로 사용한다는 환상을 시사할 뿐이다. 볼섹이 그 이름들을 드러내지 않는 고위당국자들의 구술에 관해서는, 16세기 독자들은 이름들에 대해 어떤 언급을 기대했을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어떤 이름도 소개되지 않았다. 그 구절은 볼섹이 직접적인 증인으로 내세운 특별한 신분에 대한 확신을 저버렸고, 그것은 배자와 반대되는 그의 말이라는 것과 그의 말은 신비하게 쓰여지고 구술된 문건들의 지지를 더 잘 받기 때문에 확실하다는 그의 주장을 강조했다.

볼섹이 쓴 칼빈 전기는 26장으로 이루어졌는데 기존의 어떤 장르에도 그 위치를 정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죽은 자들을 험담하지 않는” 관습을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역사적인 설명을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인데, 죽은 자들을 위한 문학적 모델이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볼섹은 칼빈을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로 거슬러 올라가서 칼빈의 제네바까지 계속되는 이단들의 연속선상에 칼빈을 위치시킴으로써 “죽은 자들을 험담했다.”는 비난을 예상한다. 이제 비록 고대 이단들의 전기가 없을지라도, 고대 세계의 전기는 참미 일색이므로, 그들의 삶과 활동에 대한 단편적인 기술들은 살라미스(Salamis)의 에피파니우스(Epiphanius)와 다른 작가들을 통해 알려졌다. 당연히 기독교 전통 안에서 이교도, 하물며 그 우두머리는 죽은 자든 산 자든 호의적으로 묘사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는 말씨가 능란하고 위선적이고, 한편으로

53. Bolsec, Calvin, 1580, 5 : “*Tam hoc quoque eundem testor Deum nihil me hoc tractatu complexum quod contra meam conscientiam scriptum esse mihi conscius sim, sed quae scribo, omnia veritate niti et vel ex tabula ac testimoniis ea me menu ipsius Calvini conscriptis desumpsisse vel referentibus maximae auctoritatis viris cognovisse vel meis oculis conspexisse manumque palpasse.*”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이끌며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 행동하는 야비한 생활을 하다 그렇게 죽은 것으로 묘사되었다. 그러므로 아리우스(Arius)의 죽음에 대해 그 유명한 전설적인 기술, 즉 그가 화장실에서 내장이 무릎으로 튀어나와 죽었다고 했는데, 그것은 다른 자료들 중에서 에피파니우스(Epiphanius)의 파나리온(Panarion, Haer. 69)으로 전해졌다.

그러므로 볼섹은 그의 저서를 시작할 때 매우 피상적이고 간단하게 고대 이단들을 언급한다. 유대교나 기독교의 이단들에 대해서는 연대 기적 순서를 별로 고려하지 않는다. 그가 언급한 기독교 이단들 중에는 아리우스 다음에 카르포크라테스(Carpocrates, 약 2세기경의 영지주의자)가 있다. 방탕한 도덕생활을 한 카르포크라테스 다음에는 에비온(Ebion)과 모세의 의식을 복음의 가르침으로 소개한 것이 나온다. 그러므로 그는 이원성과 결정론을 주장한 바실리데스(Basilides), 마르키온(Marcion)과 마네스(Manes)를 함께 묶는다. 그들 다음에는 펠라기우스(Pelagius)와 그의 원죄 부정이 온다. 볼섹이 이단의 역사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은 다른 이교도의 인격들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과 같다. 그는 간단한 설명을 통해 단지 사단이 칼빈을 도구로 사용하여 이미 정죄된 이 모든 이단들을 회복시켜서 제네바에 집결시키려 했다는 것을 보여 주려 했을 뿐이다.⁵⁴⁾

볼섹이 보기에 칼빈은 모든 이단들의 환생이요, 동의하는 공범이라기보다는 악마의 비인격적인 도구이다. 사악한 삶을 산 사람은 아무도 훌륭한 기독교인일 수 없다는 유서 깊은 원리에 따라 그는 그의 칼빈

54. Bolsec, Calvin, 1580, 20-21 : “*Caeterum nostro hoc aevo eundem illum Dei aduersarium et pacis atque Christianae concordiae hostem apparet praecipuas potissimasque ex iis quas recensuimus haeresibus falsisque dogmatibus, quae iam olim confutata fuere ac damnata, quasi in vnam massam conflatas in Geneuense oppidum rursus inuexisse idque //21// Ioannis Calvini Nouiodunensis opera atque studio.*”

전기에서 배자처럼 한편으로는 그 종교개혁가의 도덕과 행동과 죽음에,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교리에 전념한다. 도덕성이 나쁘면 나쁠수록 더욱더 악한 이단이다. 불색이 쓴 전기는 완전히 발전되지 않은 여러 소문들에 기원을 두기 때문에 특별히 중요하다. 당시 그 전기의 출판과 번역판들의 수를 보면 그것의 성공은 거대했다. 불어 판은 1577년에 리용(Lyon)과 파리(Paris)에서 동시에 출판되었고, 1582년에 재판되었다. 그것은 익명의 번역가가 1580년과 1582년에 라틴어로 축어역해서 쾰른(Cologne)에서 출판되었다. 그것이 1580년부터 라틴어로 존재했었다는 것은 다른 자국어들로 존재할 수 있었고 번역되었다는 의미가 있다. 독일어 번역판은 1580년에 나타나서 1581년과 1631년에 재판되었고, 네덜란드어 번역판은 1581년에 출판되었고, 폴란드어 판은 1583년에 나왔다.

비록 그것이 급속하게 불신되었을지라도, 1875년까지 가톨릭계에서 계속해서 출판되었다. 16세기의 전기작가들과 특별히 17세기의 전기작가들이 보여 준 것처럼 칼빈의 젊은 시절에 대한 칼빈의 기술은 적어도 장 꼬뱅(Jean Cauvin)이라고 불리는 노용 출신의 두 사람을 합성한다.⁵⁵⁾ 이 합성이다 그는 상당한 양의 소문과 허구를 더해서 칼빈의 젊은 시절을 어떤 이단들의 특징처럼 사악하게 그려 냈다. 그는 이미 그 종교개혁자의 아버지인 제라르 꼬뱅(Gérard Cauvin)이 불경한 자라고 주장하면서 시작한다.⁵⁶⁾ 사실상 자끄 르 바셰르(Jacques Le vasseur) 덕분에 노용 대성당의 적대적이지만 정직한 연대기 작가를 우리는 알고 있다. 비록 게라드 꼬뱅이 돈과 연관되어 생각되었고⁵⁷⁾ 파문당해 죽었

55. Cf. also Théophile Dufour, "Calviniana" in *Mélanges offerts à M. Émile Picot, membre de l'Institut, par ses amis et élèves*, Paris: Librairie Damascène Morgand, 1913, 1-16 esp. 13-16.

56. Histoire de la vie, moeurs, actes, doctrines, constance et mort de Jean Calvin, jadis ministre de Genève. Recueilly par M. Hierosme Bolsec, docteur médecin à Lyon. Cited here after Histoire, des trois principaux hérétiques, 39v. -124v. (Hereafter referred to as: Bolsec, Calvin).

을지라도 그가 불경한 자로 입증되었던 기록은 없다. 불색은 또한 주장하기를 칼빈 자신이 젊어 노용에서 성직자로 있을 때 남색한 것으로 정죄되었는데, 만일 그 형벌이 마지막 순간에 어깨 위에 fleur-de-lys의 낙인 찍는 것으로 감형되지 않았다면 그것 때문에 그가 화형당했을 것이라고 한다. 그 전기작가에 따르면, 칼빈은 이런 불명예로 「성직록」을 팔고 독일과 페라라(Ferrara)로 떠났다. 라 바소가 잘 기록한 것을 보면, 장 꼬뱅이라고 하는 노용의 가톨릭 부주교는 그의 방탕한 생활양식 버리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의 「성직록」을 박탈당했다. 그 기술은 칼빈이 1541년부터 제네바에서 정착하여 잘 지내고 있던 1553년 1월이라는 날짜가 아니라면, 젊은 칼빈에게 잘 어울렸을지도 모른다.⁵⁸⁾ 사형을 면하기 위한 낙인에 대해서는, 1530년대의 노용 성직자들 중 누구와도 연관하여 존재하는 기록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 정보는 1580년대에 신화로 불신 받았다. 불색은 칼빈이 노용을 떠나기 전에 꼬뱅에서 칼빈으로 개명했다고 강조하는데, 유벤텔(Juvenal)에 의하면 “복수는 가장 달콤한 선이다.”라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진 보복적이고 사악한 칼비누스(Calvinus)의 도덕과 매우 유사하게 그의 도덕과 잘 어울렸다는 사실을 몰랐거나 완전히 알고서 그랬다는 것이다.⁵⁹⁾

칼빈이 유벤텔의 13번째 풍자시(Satire)에 나오는 탐욕스럽고 복수심 강한 반영웅의 이름을 취했을 거라는 생각은 매우 의심스럽다. 그는 키케로(Cicero)가 언급한 로마의 대변인이나 그 이름을 지닌 지방총독에게서 고무되었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처럼 또 하

57. See *Annales de l'Église de Noyon jadis dite de Vermand, ou le troisieme liure des Antiquitez, Chroniques ou plustost Histoire de la Cathedrale de Noyon*, Par M. Iacques le Vasseur, docteur en theologie de la Faculté de Paris, doyen et chanoine deladite Eglise, Paris, 1633, chap. 90, 1151.

58. Le Vasseur, *Annales*, 1170-1171을 보라. Le Vasseur는 혼동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불색이 사용하지 않은 칼빈의 다른 동명이인들과 칼빈을 혼동한 다른 예들에 대해서는 Dufour, *Calviniana*, 11-16을 보라.

59. Bolsec, Calvin, 40v.

나의 로마 가톨릭 전기작가로서 칼빈의 전기를 쓴 장-빠빠르 마송(Jean-Papire Masson)은 그러한 영감을 준 사람이 바로 그 지방총독이었다고 주장한다. 볼섹이 보기에 칼빈은 총체적인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제네바를 개혁하려는 그의 첫 번째 시도들은 시 당국에 대해 폭동을 일으키려는 선동에 불과했다.⁶⁰⁾ 그의 도덕에 관해서는 결코 향상되지 않는다. 저절로 이단시된 볼섹은 그 개혁가가 남색했다고 비난한 것에 만족하지 않고, 목회적 돌봄을 핑계로 그 도시의 유부녀들 대부분과 교제했다고 비난한다.

비록 그 개혁가의 난잡성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것을 인정할지라도 볼섹은 '건전한 판단력을 지닌 여러 사람들'이 전파한 소문들로 칼빈을 편협한 호색가로 만들고, 그의 가정을 타락의 장소로 나타나게 하려고 계산된 소문들을 짜깁기까지 한다. 그 개혁가의 결혼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것은 매우 흥미롭다. 다음 인용문에서는 그 개혁가가 이성 다루는 것을 볼섹이 어떻게 묘사하는지 볼 수 있다.

나는…… 팔에 성경을 든 작은 아이만 제외하면 아무도 동행하지 않은 채, 정기적으로 그를 만나러 그의 집에 가는 유부녀들과 미혼녀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만일 그들이 그 길을 가다 친척이나 친구를 만나 어디를 가느냐고 질문 받았다면, 의심스러운 문제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그 거룩한 사람을 방문하러 가고 있다고 잠깐째 말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오랫동안 머물렀다. 여기에서 종교적인 이유들 때문에 피난하고 있는 외국인 귀족의 부인에 대한 특별한 이야기와 소문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존중의 표시로 드러내지 않으려 한다. 그래도 말하자면, 그는 제(Gex) 지경에 있

60. Bolsec, Calvin, 49r. : "Et d'audentage, ils dirent mille opprobres et vilénies contre les sindiques et seigneurs du Conseil, tachans à esmouvoir sedition et d'inflammer le peuple contre les gouverneurs et magistrats, entreprise vraiment diabolique……."

는 사코나이(Saconay) 근처에 있는 제네바 가까이에서 살았다. 문제의 부인은 젊고 아름다웠으며 해픈 여자였다. 그녀는 남편이 나라 밖으로 멀리 가면 자주 칼빈과 함께 식사하러 가서 밤새 머물렀다…….⁶¹⁾

예상대로 그는 칼빈이 다양한 질병에 시달리며 비참한 삶을 산 후 이기생증으로 죽었다고 기록했는데, 볼섹의 눈에 그 질병들은 그의 불신앙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배자가 언급한 많은 질병 이외에 어떤 병으로 고통 받았기 때문인데, 그 병은 하나님의 영광과 영예를 침범하려는 하나님의 적들을 하나님이 정의로 괴롭히신 병이다. 즉, 온몸이 이와 다른 해충에 먹혀 가렵게 되어, 사면발이에 지독히 썩힌 음부에 특별히 악취가 나고 유독한 귀양이 생기게 되는 그런 병이다."⁶²⁾ 더욱이 볼섹에 따르면 칼빈은 그의 모든 저서들과 필사적으로 개정한 「기독교 강요」 최종판을 저주하며 죽었는데, 그것은 그가 변덕스럽다는 증거이다. 그는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 만일 배자가 주장했던 것처럼 「기독교 강요」 초판이 완벽하다면 칼빈은 왜 그 저서를 그렇게 여러 번 개정했겠는가?⁶³⁾

놀라워 보이는 것은 볼섹이 칼빈을 성적 타락자라고 비난한다는 것 이라기보다는 그것이 소문에 근거한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종교개혁가에 대한 그의 이미지가 성공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볼섹의 목적이 배자의 *Discours*를 반박하기 위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그가 쓴 칼빈 전기는 1564년에 배자가 쓴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으로 밝혀진다. 배자가 칼빈의 순결과 금욕적 생활을 칭송한 반면, 볼섹은 완전한 부도덕성을 칼빈에게 돌린다. 어려운 저서를 쓸 수 있는 그 개혁가의 열심과 재능을 배자가 칭송한 것에 대해 볼섹은 반대하여 칼빈이 한 가지 저서를 개정하는 것에 강박관념적

61. Bolsec, Calvin, 70r. - 70v.

62. Bolsec, Calvin, 101v.

63. Bolsec, Calvin, 103r. - 103v.

관심을 가졌다고 하면서, 그 자체가 변덕스러움의 증거라고 주장한다. 칼빈의 후계자가 칼빈의 결혼을 경건한 결혼의 모델로 상술하는 곳에서 전 카르멜 수도사는 유부녀를 유혹하는 자로 칼빈을 다루면서 그것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 베자가 칼빈의 훌륭한 죽음을 찬미한 반면, 볼섹은 고대의 모든 이단을 구현하는 이단 우두머리에게 마땅한 것처럼 그가 혼자서 비참하게 죽었다고 했다. 베자가 이교도들에 대한 칼빈의 관대함을 높인 반면 볼섹은 세르베투스의 죽음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그에게 지웠는데, 그 근거 없는 통념은 그릇됨을 증명하려는 많은 시도들에도 불구하고 놀라울 정도로 오래 갔다. 볼섹이 자신의 칼빈 전기로 베자의 Discours에 반대하고 있을 때는 베자가 1575년에 쓴 전기를 알지 못했는데, 거기에서 칼빈의 후계자는 신실성에 대한 기준을 분명히 내세웠다.

만일 베자가 1564년에 이미 그렇게 했다면, 볼섹의 작업은 훨씬 더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베자의 첫 번째 Discours는 칼빈주의 전기가 탄생하는 징조로 보였는데, 그와 콜라동이 제네바 종교개혁가의 전기를 이어서 씀으로써 정화시키려고 애쓰는 인상을 주었다. 이러한 시도에서 그들은 볼섹이 그 종교개혁가의 평판을 비방하려는 목적으로 했던 것보다 다소 덜 성공적이었음을 입증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부도덕한 이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는 거룩한 영웅으로 보이는 칼빈의 이중성은 오늘날까지 또 칼빈의 역사가들을 괴롭히고 있다.

논찬

이레나 박쿠스는 이 논문에서 친-칼빈 전기와 반-칼빈 전기의 상관 관계를 논함으로써 이중적인 칼빈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었는지 그 과정을 밝혀 주고 있다. 친-칼빈 전기에는 1564년에 베자(Beza)가 쓴 전기, 1565년에 콜라동(Colladon)이 쓴 전기, 그리고 1575년에 베자가 개정한 전기가 속한다. 이와 상반되게 쓰여진 반-칼빈 전기는 1577년 칼빈의 예정론 대적이었던 볼섹(Bolsec)의 칼빈 전기이다.

박쿠스는 베자의 칼빈 전기를 포시디우스의 어거스틴 전기와 비교한다. 베자는 1564년 프랑스에서 첫 번째 칼빈 전기를 칼빈의 여호수아 주석 서문으로 썼는데, 포시디우스의 어거스틴 전기 모델을 참고하면 서도 차별화를 두었다. 베자는 포시디우스처럼 연대기적 순서로 설명하고, 포시디우스의 어거스틴 같은 베자의 칼빈은 대부분의 생애를 이단과 투쟁하면서 보낸 모범적인 교인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어거스틴의 생애에 대한 사실적 보도와 그의 공적이고 사적인 도덕에 대한 묘사를 분리시킨 포시디우스와 다르게 베자는 그 둘을 뒤섞는다. 칼빈의 태생과 교육에 대한 표준적인 설명을 하고 난 후에, 그의 제네바로부터의 추방과 귀환에 대해 이상적인 설명을 한다. 나머지 보도에서 그는 그 주제의 공적이고 사적인 도덕을 뒤섞는다. 어거스틴과 대조적으로 비록 칼빈은 결혼했을지라도, 그에게라기보다는 그와 가까운 사람들(사실상 그의 처제)을 겨냥한 간통에 대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그의 결혼은 가장 순결하였다. 정황, 시대, 사람들의 차이점을 고려하면서, 어거스틴의 전기작가처럼 베자는 칼빈이 이단들에 대항한 투쟁, 교회에 행한 봉사, 신적 은총의 간섭, 그의 공적이고 사적인 도덕성의 고차원적 수준, 그리고 특히 그의 순결에 대해 주장한다.

1565년에 쓰여진 콜라동의 전기는 포시디우스의 어거스틴 전기와 비

교할 때 전혀 다르다. 칼빈의 삶 가운데 일어난 사건들을 엄격하게 연대기적인 순서로 배열함으로써 콜라동은 포시디우스적인 모델을 채택하지 않은 것이다. 콜라동은 사건들에 더 많이 초점을 맞추는데, 이것은 곧 칼빈이 정적인 모델이라기보다는 주위 환경과 상호 작용하는 사람으로 보여진다는 의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기작가의 목적은 칼빈을 당시의 역사 속에 위치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칼빈의 생애를 오직 섭리의 일부분으로 기술하는 것이다. 이러한 섭리적 틀에서 표현될지라도, 콜라동의 전기는 베자의 1차 전기에 나타나지 않는 온갖 종류의 칼빈에 관한 일화를 포함하고 있다. 동시에 그는 베자보다 훨씬 더 칼빈의 저서들에 열중하여 신중하게 그것들을 연대순으로 배열한다. 콜라동은 부분적으로 칼빈의 출판된 저작들의 정확한 연대를 수립하려는 욕망으로 자극 받아, 그 사람은 곧 교리라고 베자가 최초로 주장한 것을 재강화한다. 콜라동이 한 것은 칼빈의 생애와 일에 관해 훨씬 더 변명적인 보도로 쓰여졌는데, 그것은 명시적으로 개인적인 지식 위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이 틀에 꼭 들어맞도록 기록되어 왔던 베자의 1차 전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는다.

베자가 1575년에 두 번째로 쓴 칼빈 전기는 칼빈의 서신에 첨부되었다. 베자가 전기와 서신을 문서 자료로 결합시키고 있지만, 그의 저술이 서신들에 기초하고 있다고 시사하는 곳은 아무 곳에도 없는데, 그 서신들은 공적인 용도로 매우 주의 깊게 발췌된 것이다. 그 서신들의 기능은 그 종교개혁가의 어떤 이미지를 확증하는 것이고, 독자로서 하여금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게 하거나 그에 관하여 아직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다. 베자는 의식적으로 장례식용 송덕가의 변형으로써의 고대 전기 모델과 성인들의 전기 모델, 둘 모두에서 떠난다. 콜라동은 단순성을 위해 칼빈의 전기를 연대기적 순서로 시작한다고 명시함으로써 그 경향을 확립시켰으나, 그 장르를 정의한 사람은 바로 베자이다. 베자의 두 번째 칼빈 전기에서는 칼빈의 신체에 대

한 묘사가 나온다. 요약된 형태로 단지 그의 죽음을 설명한 다음일지라도 그가 중간 키이며, 그가 죽을 때까지 눈빛이 빛나서 예리한 통찰력이 있어 보였고, 피부가 매우 창백했다고 묘사된다. 최종판으로 된 베자의 칼빈 전기는 새로운 형식의 종교적 전기의 시작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개인들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개념의 시작으로 표시된다. 기대될 수 있는 것과는 반대로 칼빈은 성인이 아니며, 프로테스탄트의 예정론 개념을 고려한다면 또한 하찮은 사람도 아니다. 베자는 기독교 영웅의 개념을 칼빈 전기에 삽입한다.

칼빈의 세 전기는 형식에 있어서 점차 발전되는 과정을 보이지만, 셋 모두에서 칼빈이 똑같은 모습으로 드러난다. 저작들이나 일화들의 날짜들과 같이 부가된 새로운 사실들은 그의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선택되었다.

이와 같은 친-칼빈 전기에 반박하는 반-칼빈 전기가 나타난다. 1577년 제롬 볼섹이 베자의 첫 번째 칼빈 전기를 반박하기 위해 칼빈 전기를 쓴 것이다. 따라서 그가 쓴 칼빈 전기는 1564년에 베자가 쓴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으로 밝혀진다. 베자가 칼빈의 순결과 금욕적 생활을 칭송한 반면 볼섹은 완전한 부도덕성을 칼빈에게 돌린다. 어려운 저서를 쓸 수 있는 그 개혁가의 열심과 재능을 베자가 칭송한 것에 대해 볼섹은 칼빈이 한 가지 저서를 개정하는 것에 강박관념적 관심을 가졌다고 하면서 그 자체가 변덕스러움의 증거라고 주장한다. 칼빈의 후계자가 칼빈의 결혼을 경건한 결혼의 모델로 상술하는 곳에서 볼섹은 유부녀를 유혹하는 자로 칼빈을 다루면서 그것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 베자가 칼빈의 훌륭한 죽음을 찬미한 반면, 볼섹은 고대의 모든 이단을 구현하는 이단 우두머리에게 마땅한 것처럼 그가 혼자서 비참하게 죽었다고 했다. 베자가 이교도들에 대한 칼빈의 관대함을 높이 반면, 볼섹은 세르베투스의 죽음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그에게 지었다.

이와 같이 이레나 박쿠스는 4가지의 칼빈 전기를 친-칼빈적 전기와 반-칼빈적 전기로 분류하면서 칼빈에 대한 이중적인 기록이 생기게 된 이유를 분석하고 있다. 저자는 지루할 수도 있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드러난 역사적 진실보다는 칼빈에 대한 이중적 이미지가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었는지 그 과정을 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역사적 문헌으로서의 칼빈 전기들을 객관적으로 예리하게 비교·분석하여 그 상관성을 밝혀낸 것은 박쿠스의 큰 공헌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베자와 콜라동의 친-칼빈적인 묘사와 볼색의 반-칼빈적인 묘사 중 어느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입장은 밝히고 있지 않다. 다만 제3자의 입장에서 양 진영의 전기를 서술하면서, 이중적인 칼빈 전기는 정황의 산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을 뿐이다. 역사는 사가의 현재적 관심이 반영되기 마련이고 또한 역사가에게는 그릇된 평가를 바로잡아야 할 사명이 있다. 그러나 박쿠스는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는 듯하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부도덕한 이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는 거룩한 영웅으로 보이는 칼빈의 이중성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했다면, 그것을 해결하려는 의지도 저자에게 있기를 우리는 기대하게 된다. 친-칼빈적 전기가 반-칼빈적 전기에 비해 영향력이 약해서 칼빈의 참된 이미지가 훼손당하고 있다면, 저자가 속해 있는 프로테스탄트 개혁주의 입장에서 그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필요성과 실천적 방안이나 제안이 이 논문에 포함되었기를 바라는 아쉬움이 남는 것이다.